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terion Scores for the Attachment Q-set in Korea

이 영**
Lee, Young
박 경 자***
Park, Kyung Ja
나 유 미****
Rah, Yu M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riterion scores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Attachment Q-set. It further examined distribution of security of attachment scores of Korean infants and differences in attachment scores by the cultural background. The criterion scores of attachment security were developed by 8 judges who are knowledgable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They used the Q-set to describ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ideally secure infants of 12 and 36 months of age. Distribution of the attachment scores was analyzed with 191 infants, compiled from 4 studies including infants selected for this study.

The attachment security criterion scores developed for Korean infants correlated highly with the Waters' criterion scores (1987) for American infants, .90 for 12 months and .88 for 36 months of age. Correlations between attachment scores developed for 12-and 36-month-olds was .89. The attachment security scores of the Korean version was a little higher and more negatively skewed than scores calculated using the American criter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curity of attachment scores by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infants, but not with employment status of the mothers. Infants of nonemployed middle class mothers had significantly higher security of attachment scores than infants of nonemployed lower class mothers. Infants from lower class families had higher "difficulty" scores, and "enjoying physical contact" scores were higher among infants from the middle class.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

Ⅰ. 서 론

인간이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애착은 영유아발달 영역에서 연구의 잠재력이 가장 큰 주제 중의 하나이다. 초기 경험이 개인의 이후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정신분석이론을 비롯한 여러 발달이론에서 이미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실이다.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 애착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애착 이론'은 가장 유용한 이론적인 틀로서 자리하고 있다. 애착이론은 Bowlby에 의해 동물행동학과 진화론적 관점에서 시작되었고, Ainsworth의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다. Ainsworth는 그의 Balitimore 종단연구를 통해 Bowlby의 모델을 지지하는 규준자료를 제공했으며, 12~18개월 영아가 양육자에게 형성하는 애착 관계의 개인차를 설명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낯선상황실험(Strange Situation)'이라는 절차를 고안하였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낯선상황실험은 애착 유형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서, 표준화된 실험 절차와 점수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실험 절차는 3분 정도 진행되는 에피소드 여덟 개가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 영아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애착 행동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졌다. 영아의 애착 유형은 낯선상황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자와 영아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영아가 양육자와 재결합할 때 보이는 애착 행동의 표현 방식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주요 애착 유형(A, B, C)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 실험실 방법을 통한 연구들은 애착의 질을 형성하는 선행 요인뿐 아니라 초기 애착으로 인한 이후의 발달적 영향력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낯선상황실험을 이용한 애착의 측정은 애착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왔지만, 애착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영아의 양육환경이 미국과는 다른 사회 문화에서 영아에게 낯선상황실험을 이용하여 애착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다(LaFreniere, 1985; Miyake, Chen, & Campos, 1985; Sagi, Lamb, Lewkowicz, Shoham, Dvir, & Estes, 1985; Strayer, 1984). 이는 문화마다 아동 양육의 방법이 달라서 영아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익숙한 환경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권의 영아가 낯선상황실험에서 보이는 반응을 해석할 때 미국의 중류층 표집에서 얻은 준거를 사용하여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LeVine & Miller, 1990).

실제 여러나라에서 낯선상황실험을 사용하여 애착을 연구한 결과(김종순, 1989; 박응임과 박성연, 1994; 유효순, 1985; 이영환, 1992, 1993; Grossmann, Grossmann, Spangler, Suess, & Unzner, 1985; Lamb, Hwang, Frodi, & Frodi, 1982; Takahashi, 1986), 애착 유형의 분포는 문화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 예를 들어 일본 연구자들(Miyake et al., 1985; Takahashi, 1986)은 낯선상황실험과 그에 따른 A, B, C유형으로의 분류는 일본 영아들의 애착 안정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영아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양육하기 때문에 일본의 영아가 낯선상황실험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너무 강해서 불안-저항 애착유형인 C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고, C유형의 영아 중에는 유사-C(pseudo-C)유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낯선상황실험은 애착의 측정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실험실에서 관찰되는 영아의 안전-기반(secure-base) 행동들이 영아의 애착 제어 체계(control system)의 활성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실험실 자체가 지니는 요구 특성과 한계점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Posada, Gao, Wu, Posada, Tascon, Sch elmerich, Sagi, Kondo-Ikemura, Haaland, & Synnevaag, 1995).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애착 연구가 이러한 실험실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가정이라는 자연스런 맥락에서의 연구가 소홀히 되어 애착 이론의 범위를 오히려 좁히는 결과를 빚어내기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Bretherton, 1992). 사실상, 낯선상황실험은 안전-기반 행동의 제한된 측면만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낯선상황실험은 각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질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애착/탐색의 균형을 넘어서서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영아의 전반적인 안전-기반 행동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는 회의적이다(Seifer & Schiller, 1995). 즉 애착 체계가 고도로 활성화될 때의 애착 행동의 양상만을 설명하며, 활성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애착 행동과 탐색 행동의 양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낯선상황실험을 사용한 연구들은 어머니-유아 관계의 질적인 유형만을 연구함으로써, 초기 애착이 아동 발달의 다른 측면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Waters & Deane, 1985). 애착 연구에 있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비교해 볼 때, 흔히 질적 분석은 과거 경험의 동질성을 규명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비해, 양적 분석을 통해 개인차를 측정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고 한다(Strayer, Verissimo, Vaughn, & Howes, 1995). 양적 접근방법은 예언 타당도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질적 접근으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내용들을 상실할 수 있는 약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도 낯선상황실험은 12개월~24개월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고안된 절차로서 이 시기를 벗어난 유아기 또는 아동기 등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같이 애착 연구가 낯선 상황이라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점과 질적 분류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aters와 Deane(1985)은 Q-sort 방법을 애착 측정에 이용하여 애착 Q-set를 고안하였다. 애착 Q-set의 최근 판(Waters, version 3.0, 1987)은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가정의 자연스런 상황에서 영유아가 애착 대상 인물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나타내는 행동들을 특징지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특정 영역의 성격, 태도,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맥락에서의 행동이나 특정한 행동들을 다루고 있다. 즉 동물행동학적 제어 체계의 관점에서 애착의 전 영역에 걸친 행동, 즉 유아의 안전 기반과 탐색행동, 정서적 반응, 사회적 참조, 기타 사회 인지 등의 여러 측면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해 1점~9점까지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류된 자료를 점수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즉 애착 Q-set가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별 항목 각각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애착 Q-set 항목들에 대한 피험자의 점수를 하나의 변인으로 다룰 수도 있다. 이 점수들과 다른 자료들 간의 상관을 볼 수도 있고 집단간의 차이를 항목별 차의 유의도 검증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

또한 관련된 몇 개의 애착 Q-set 항목들을 묶어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준거를 가지고 특정 내용에 관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하위 세트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점수를 합친 점수는 단일 구인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각기 다른 준거에 따라 항목들을 조합하여 사용한 연구자들도 있다(Pederson & Moran, 1995; Posada, Waters, et al., 1995; Strayer et al., 1995).

애착 Q-set 결과의 분석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이 만든 준거 분류와 피험자 영아에 대한 분류와의 상관관계를 내는 방법으로서, 여기에서 얻어진 상관계수가 곧 피험자 유아의 애착 관련 구인들의 점수가 된다. 전문가의 준거점수는 몇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 각 구인들에 대해 가장 최적의 발달 상태를 보인다고 가정되는 가설적인 유아를 염두에 두고 애착 Q-set를 분류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1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던 초판 애착 Q-set(Waters & Deane, 1985)에는 애착과 관련된 구인으로 '안정성', '의존성', '사회성' 구인에 대한 전문가의 준거점수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파를 통제하기 위한 준거점수가 제시되었고 각 구인마다 12개월과 36개월 유아를 위한 준거점수가 별도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100개의 항목으로 된 초판 Q-set는 잘 훈련되지 않은 관찰자들, 즉 어머니가 관찰할 경우에는 분류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어, 어머니를 관찰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90개의 항목으로 개정되었다(Waters, 1987). 이밖에도 애착 Q-set의 최근 판(Waters, 1987)에서는 '안정성'과 '의존성'에 대한 전문가의 준거점수가 제시되었고 연령에 따른 구분없이 유아기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단일한 준거점수를 제시하였다. 90개의 항목속에는 세가지 관련 구인인 안정성, 의존성, 사회성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었으며, 이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개정판에서는 접근/탐색 균형, (다른 성인과는 구별된) 부모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 독립성,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 사회성, 사회적 지각에 관한 척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애착 Q-set는 주로 영아기를 넘어선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을 연구하고자 할 때, 문화적인 차이를 알고자 할 때, 그리고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질적 분류보다는 양적인 개인차를 알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서의 아동의 적응(Vaughn, Deane, & Waters, 1985), 어머니와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영아의 애착의 비교(나종혜, 1994; Howes & Hamilton, 1992a, 1992b),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 간의 관계(Pederson et al., 1990; Silverman, 1990), 보육시설 경험의 정도와 애착 안정성(Belsky & Rovine, 1990),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기질 간의 관계(이정희, 1994; Vaughn, Waters, Kotsaftis, Stevenson - Hinde, Lefever, Shouldice, Trudel, & Belsky, 1992), 문화간 유아의 안전-기반 현상 비교(Posada, Gao, et al., 1995; Strayer et al., 1995; Vaughn et al., 1991),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의 양육의 질 간의 관계(이 영, 신은주, 나종혜, 1994, 1995; Schachere, 1989; Teti, Nakagawa, Das, & Wirth, 1991), 형제나 친구관계와 애착 안정성 간의 관계(Bosso, Corter, & Abramovitch, 1990)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낯선상황실험을 이용한 애착 유형의 분류와 가정에서의 관찰에 기초한 애착 Q-set에서의 측정 결과 간에 이론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상호연관성을 발견함으로써, 애착 Q-set의

구인 타당도를 지지해 주고 있다(Belsky & Rovine, 1991; Bosso, Corter, & Abramovitch, 1990; Howes & Hamilton, 1992a, 1992b; Pederson & Moran, 1996; Vaughn & Waters, 1990; White & Feldstein, 1994).

애착 Q-set는 각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여러 문화에서 애착 안정성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지만, 유아의 행동은 각 문화권마다 아동 양육 방식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여러 문화권에서 애착 Q-set를 사용하여 애착을 측정하고자 할 때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Waters(1987)의 안정성 준거 점수는 미국 문화권에서의 양육 방식에 의해 형성된 미국 유아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개발된 준거 점수이다. 그러므로 Waters의 애착 Q-set의 항목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그 행동을 보이는 정도에 있어서 미국 유아와 우리나라 유아들이 같지 않은 항목도 있을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유아의 행동은 차이가 있다고 볼 때(Posada, Gao, et al., 1995), 유아의 행동은 어머니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애착 Q-set를 통해 애착 안정성을 측정할 때, 애착 안정성의 준거점수는 그 문화권에서 준거 정의를 세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가족 구조가 출현하고 있어서 다양한 양육의 생태학적 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아의 발달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바, 유아의 초기 애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취업모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증가함으로써 부모와 장시간 떨어져 양육되는 유아들이 많아졌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 장애를 갖는 사례가 임상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권에서 유아의 애착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애착 Q-set에 대한 국내준거점수를 만들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준거점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애착 Q-set를 적용하여 유아-어머니 간 애착 관계의 질을 살펴보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있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비교·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애착 Q-set 안정성 준거점수는 어떠한가?

2) 우리나라 유아들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분포는 어떠한가?

3) 사회문화적 배경(계층,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애착 Q-set 안정성 점수 분포와 애착 Q-set 하위요인별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해 별도로 수집된 자료와 다른 3개의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모두 포함되었다. 총 연구 대상 유아는 11개월부터 33개월 사이의 유아 191명이었다. 연구 대상 선정시 저소득층을 표집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1989)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저소득층의 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행정구역에서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중류층의 경우에는 서울시내와 대전시내에서 비교적 중류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표집하였다. 취업모 유아의 경

우에는 해당 구역의 어린이집을 통해 표집했다. 연구대상 유아의 형제순위를 보면, 중산층 비취업모의 유아 42%가 첫째였으며, 중산층 취업모의 유아는 57%, 저소득층 비취업모의 유아 53%가 첫째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산층 비취업모의 64%, 중류층 취업모의 65%가 대졸이상이었으며, 중졸이하는 없었다. 반면 저소득층의 60%가 고졸이었고 40%가 중졸이하였다. 유아전체 표집을 구성하고 있는 유아의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수

분류(표집 출처)	남	여	계
중산층 비취업모(본 연구+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4)	34	37	71
중산층 취업모(이정희, 1993+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4)	49	41	90
저소득층 비취업모(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5)	19	11	30
계	102	89	191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Waters와 Deane (1985)이 제작한 애착 Q-set(Attachment Q-set)의 개정판(Waters, 1987)으로서, 이 도구는 가정이나 그 밖의 일상적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의 행동을 설명하는 문항이 담긴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 Q-set는 어머니나 관찰자가 영아의 특성을 기술하는 문항이 적힌 카드를 읽고 자신의 영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카드의 분류 방법은 먼저 90개의 카드에 대해 아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많이 일치하는', '보통 일치하는', '일치하지 않는' 수준으로 크게 세묶음을 나누고, 다시 세 묶음 중 한 묶음만을 놓고 같은 방법으로 세묶음으로 나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모두 9개의 수준으로 분류하게 된다. 즉 90장의 카드 중 영아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카드는 9점에,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의 카드는 1점에 놓되, 각 점수마다 모두 10장의 카드가 놓이도록 한다. 따라서 아동은 각 항목별로 1~9점의 범위에서 점수를 받게 된다. Waters와 Deane (1985)이 조사한 이 도구의 신뢰도를 보면 2명의 관찰자 간 일치도는 .75~.95였으며 관찰자와 어머니 간의 일치도는 .59~.93이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자와 어머니간 평균 일치도는 .73(이정희, 1994), .75(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4)였다.

3. 연구 절차

애착 Q-set의 한국판 준거점수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내에서 애착을 주제로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8명[1]으로 연구 모임을 구성하였다. 이들 전문가는 아동학과 발달 심리학 분야

1) 준거 점수 산출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희, 김숙령, 박경자, 박성연, 송동호, 신의진, 유효순, 이 영.

의 교수 및 소아정신과 의사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2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한국판 준거점수의 필요성 및 의의, 방법 등에 대한 토론 및 도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그 후 전문가들은 애착 Q-set의 90개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 유아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가장 이상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가정된 유아 행동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적힌 행동이 이상적인 아동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각각 10장씩 분류하였다. 국내 유아들의 애착 Q-set 자료 수집은 일부 중산층 비취업모의 경우는 어머니가 분류하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관찰자가 분류하였다. 관찰자는 각 가정당 1회 방문시 약 30~60분간 관찰로 약 3회에 걸쳐 아동의 행동특성을 관찰한 후 카드를 분류하였다. 어머니가 분류한 경우에는 관찰 항목을 미리 주어 일정 기간동안 아동 행동을 관찰하도록 한 후 연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를 보조해주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카드를 분류하였다.

4. 자료처리

애착 Q-set 안정성 국내 준거 점수는 전문가 8명이 이상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가정된 우리나라 유아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애착 Q-set 각 문항에 대해 부과한 점수를 평균내어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아동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준거점수와 연구 대상 아동이 얻은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점수화하였다. 안정성 점수 이외에, 애착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애착 Q-set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는 Pederson과 Moran(1995)이 애착 Q-set 분류에서 유아의 애착 행동을 5개 하위 영역으로 범주화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90개 항목에 대해 관찰자가 배정한 원점수를 이용하여 '안전-기반 행동(14개 항목)', '정서적 공유(3개 항목)', '순응(6개 항목)', '신체적 접촉 즐김(5개 항목)', '까다로움(14개 항목)' 등 5개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여 집단간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애착 Q-set의 안정성 국내 준거 점수

여덟 명의 전문가들이 분류한 각 문항의 점수를 평균내어 산출한 각 문항별 애착의 안정성 준거점수는 〈표 2〉와 같다. 여덟 명의 전문가들이 분류한 결과 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12개월 유아에 대한 분류에서는 .70이었으며, 36개월 유아에 대한 분류는 .73의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 산출된 12개월 유아용 안정성 준거 점수 및 36개월 유아용 안정성 준거 점수와 미국의 전문가에 의해 산출된 Waters(1987)의 안정성 준거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90과 .88이었다. 한편, 국내 12개월 유아용과 36개월 유아용 안정성 준거 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89였다.

2.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분포

본 연구에서 산출된 국내 안정성 준거 점수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 유아들의 안정성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하며 취업모의 유아와 비취업모의 유아를 모두 포함한 전체 표집(N=191)에서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36이었고(SD=.20), 범위는 -.30~.74였다. 이 자료를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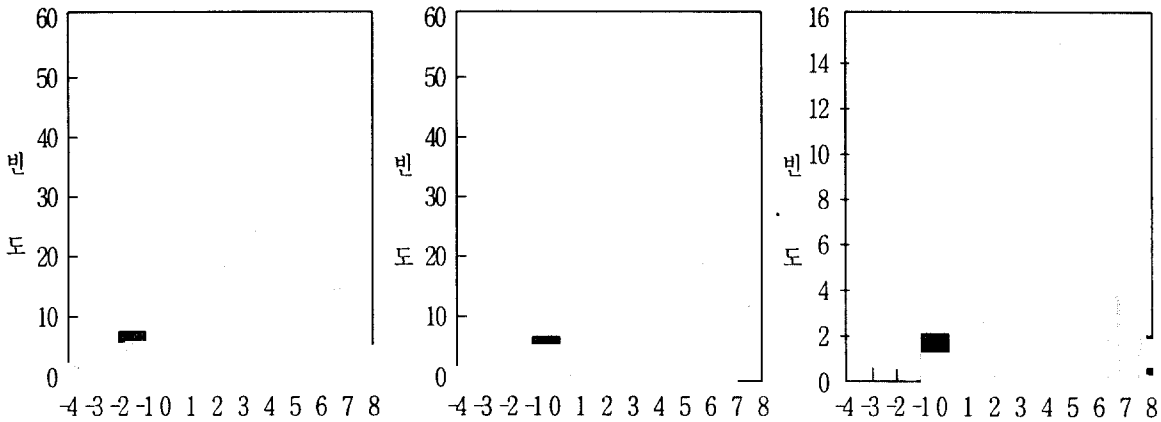
〈표 2〉 12개월과 36개월 유아용 애착 Q-set 국내 안정성 준거 점수 및 미국 준거 점수[2)]

항목번호	미국	한국		항목번호	미국	한국		항목번호	미국	한국	
		12개월	36개월			12개월	36개월			12개월	36개월
1	8	8.38	8.13	31	2.5	5	3.25	61	1.83	2.63	2
2	1.83	1.75	1.25	32	7.17	6.88	7.25	62	5.5	6.38	7.63
3	4.83	4	3.63	33	1.33	2	1.75	63	2	3.88	2.75
4	6.17	5.5	6	34	1.17	1.63	1.13	64	7	6.63	5.63
5	6.33	5.88	6.38	35	4.33	3.13	7.5	65	1.83	2	1.25
6	2.17	4.13	2.38	36	8.83	8.63	7.75	66	7	4.63	6.13
7	4.33	5	5.38	37	4.83	4.25	5.75	67	4	4.13	3.88
8	3.33	2.38	2	38	1.17	1.88	2	68	5	4.63	5.5
9	6.5	6.5	7.88	39	4.67	6.63	4.5	69	2.33	1.63	2.75
10	2.33	1.88	1.75	40	6.5	5.88	4.5	70	8	9	8.63
11	7.5	7.88	7	41	8.5	6.75	6.13	71	8.83	8.75	8.88
12	6	6.38	6.75	42	8.17	7	8	72	4.5	5.63	5.25
13	2.67	3.25	1.38	43	4.67	8.38	6.88	73	5.17	4.38	3.75
14	7.83	7.88	7.25	44	7.67	8.88	6.88	74	1.5	1.5	1.13
15	7367	6.5	7.63	45	5.17	5	5.88	75	1.17	2.38	1.63
16	5.17	5.63	5.75	46	5.67	4.5	5.13	76	3.17	2.63	3.38
17	3.5	3.5	3.75	47	7.17	7.63	7.75	77	7.67	7.38	8.25
18	8.5	7.63	7.88	48	6	4.75	5.63	78	4.5	2.75	3.38
19	7.67	7.75	7.88	49	6.33	8	6.75	79	1	1.38	1.63
20	4.17	4.38	5.88	50	3.5	2.88	3.13	80	8.5	7.25	6.63
21	8.83	7	3.88	51	4.67	4.38	4.13	81	1.83	3.88	2.75
22	6.6	6.25	7.25	52	3.83	3.5	3.5	82	4	3.13	3.38
23	2.67	5	4.13	53	8.5	8.5	8.38	83	6.5	5.5	4.88
24	4.5	5.38	5.5	54	1.5	1.75	1.5	84	5	4	5.13
25	2	2.13	2.63	55	7	6.38	5.7	85	7.5	6.63	7.75
26	3.33	4.25	2.75	56	2.67	2.5	2.5	86	6.5	7.25	6.5
27	6.33	7.75	7.25	57	4	3.63	4.5	87	5.83	7.5	7
28	7.5	7.88	5.75	58	3.17	2.38	3.38	88	1.17	1.50	1.25
29	4.33	3.25	4.25	59	3.83	4.5	6.25	89	6.5	5	6.6
30	2.33	2	2.13	60	8.5	7.88	7.63	90	8.33	7.13	

2) 미국 준거점수는 Waters(1987)의 연구에 제시된 점수이다.

미국의 애착 안정성 준거점수를 적용하여 분석했을 때, 평균은 .34(SD=.20)였으며, 범위는 -.34~.68이었다.

본 연구 대상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 분포 및 미국 유아의 안정성 점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나 표준편차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국내 준거 점수를 적용하였을 때 분포가 미국 유아들의 점수 분포형태와 더 유사하였다.



〈그림 1〉 본 연구 표집과 미국 표집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 분포

3.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분포 비교

본 연구 표집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및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유아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생태학적 환경에 처한 표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애착의 안정성에 있어 한국판 준거 점수를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에서의 차이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에서의 차이를 각각 비교하였으며, 또한 애착 Q-set의 하위 요인에 대한 점수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첫째, 계층에 따른 안정성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중산층 비취업모 유아와 저소득층 비취업모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산층 유아의 점수(M=.41)가 저소득층 유아의 점수(M=.24)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17.91, df=1, 99, p<.001). 이와 같은 집단간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derson과 Moran(1995)이 분류한 5개 하위영역점수로 분석하였을 때, '까다로움'과 '신체적 접촉 즐김'

요인에서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분노를 곧잘 표현하거나 칭얼거리는 등 다루기 쉽지 않은 정서적 특성을 기술하는 항목들로 구성된 '까다로움' 요인에서 중산층 유아(M=3.64)는 저소득층 유아(M=4.63)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F=14.79, df=1, 99, p<.001), 어머니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좋아하는지를 평가하는 '신체적 접촉 즐김' 요인에서는 중산층 유아(M=6.64)가 저소득층 유아(M=5.93)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F=3.9, df=1, 99, p<.05).

둘째,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안정성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산층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의 안정성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취업모의 유아(M=.41)와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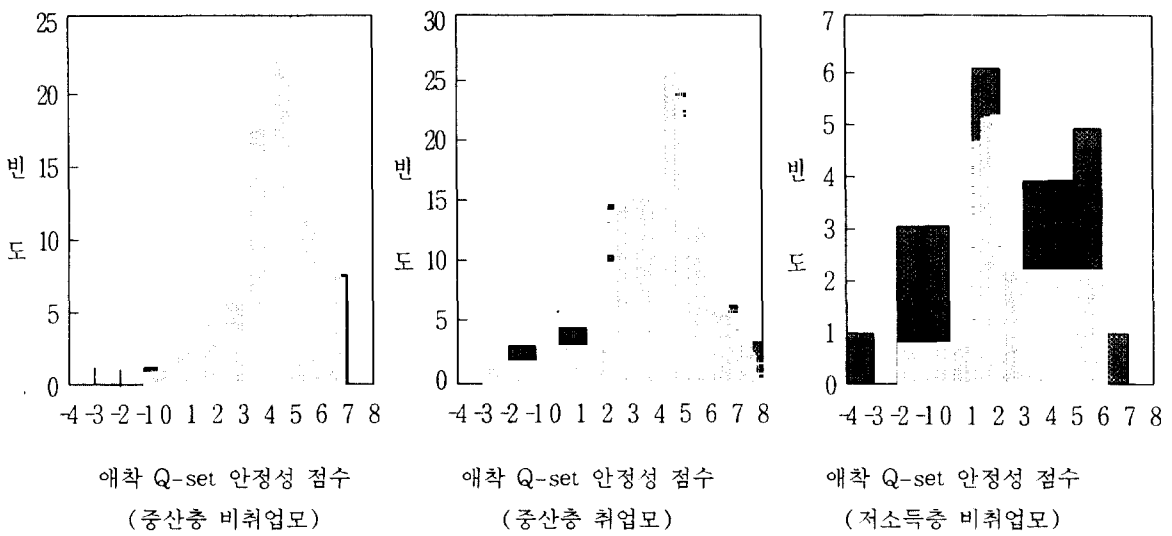
〈표 3〉 중산층 비취업모, 중산층 취업모, 저소득층 비취업모 유아의 애착 Q-set 요인별 점수 분포

요 인	중산층 비취업모		중산층 취업모		저소득층 비취업모		F^a	F^b
	M(n=71)	SD	M(n=90)	SD	M(n=30)	SD		
순응(6)+	6.00	1.27	5.84	1.30	5.72	1.59	88	.56
까다로움(14)	3.64	1.00	3.86	1.02	4.63	1.58	14.79**	1.98
안전-기반 행동(14)	5.93	.68	5.88	.61	5.78	.97	.71	.18
신체적 접촉 즐김(5)	6.64	1.64	6.32	1.85	5.93	1.67	3.94*	1.32
정서적 공유(3)	6.12	1.27	6.35	1.13	5.84	1.80	.78	1.47

a 계층에 따른 F 검증 결과.(중산층 비취업모 vs. 저소득층 비취업모)

b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F 검증 결과.(중산층 비취업모 vs. 중산층 취업모)

*p<.05 **p<.001 +( )안은 문항수임



〈그림 2〉 중산층 비취업모, 중산층 취업모, 저소득층 비취업모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 분포

모 유아(M=.37)간에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애착 Q-set의 하위 요인 각각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집단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 및 애착 Q-set 하위 요인 각각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3〉과 같으며, 각 집단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분포 형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중산층 표집에서는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Posada, Gao, 등(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에 저소득층 비취업모 유아 표집에서는 마이너스 점수에 비해 플러스 점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일반적인 분포양상인 정적편포에서 다소 벗어난 분포 형태를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1. 애착 Q-set의 국내 안정성 준거 점수

본 연구에서는 애착 Q-set의 안정성 준거 점수를 12개월 유아용과 36개월 유아용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1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던 처음의 애착 Q-set(Waters & Deane, 1985)는 12개월과 36개월 유아용 준거점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개정판(애착 Q-set, version 3.0, Waters, 1987)은 유아기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준거 점수로 개발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2개월 유아와 36개월 유아는 애착 행동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두 연령을 구분하여 준거점수를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고 각 연령별로 준거 점수를 산출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이 애착 Q-set를 분류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12개월 유아와 36개월 유아의 행동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항목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떨어져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특히, 21번, 35번 항목)에서, 12개월 유아들은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36개월 유아들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두 항목의 경우 미국의 준거점수는 우리나라 12개월용 준거점수와 더 유사하였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분류에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12개월 유아와 36개월 유아에 대해 차별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육행동을 비교문화적으로 1세와 3세 유아에 대해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 어머니들과는 달리, 1세 유아에 대해서는 어머니 가까이에 두고 신체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는 등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이지만, 3세 유아에 대해서는 규칙을 가르치는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조장하며,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Chung, 1973).

한편, 본 연구에서 산출된 12개월과 36개월용 준거점수와 미국의 준거점수(Waters, 1987)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90, .88이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분류한 것과 Waters(1987)의 준거점수 간의 상관관계(Posada, Gao, et al., 1995)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특히 애착이론에 친숙한 독일(.93), 이스라엘(.92), 일본(.90), 노르웨이(.91)의 전문가들의 분류는 콜롬비아(.80)와 중국(.83)에 비해 미국 준거점수와의 상관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의 전문가 분류가 Waters(1987)의 준거와 그 상관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양육 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유아의 행동에 있어서는 문화권마

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준거점수 중 미국의 준거점수와 다소 차이가 나는 항목(21번, 35번, 43번, 49번, 66번)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유아에 비해 우리나라 12개월 유아들은 어머니 곁에 가까이 있으려는 행동을 보이며 36개월 유아들은 보다 더 독립적으로 놀이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밖에도 12개월 유아들은 낯선사람과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어린 유아들을 양육할 때는 가정에서 좀 더 가까이 두고 지내는 편이며 36개월 정도 된 유아들의 경우에는 보다 더 독립적으로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준거점수에는 구체적인 양육행동면에서의 문화권 간 차이가 반영되므로 애착 Q-set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권에 맞게 개발된 준거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분포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본 연구에서 산출된 국내 준거 점수와 미국의 준거 점수를 둘 다 적용하여 안정성 점수 평균과 점수 분포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국내 준거 점수를 이용하였을 때 연구 대상 유아의 안정성 점수 평균은 미국의 준거 점수로 산출한 경우보다 다소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각 개인의 점수에서는 어느 준거 점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점수의 변동이 .1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 준거 점수와 국내 준거 점수를 둘 다 적용한 후 미국의 선행 연구(Posada, Gao 등, 1995)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유아에게 국내 준거 점수를 적용한 경우의 안정성 점수 분포 양상은 미국 준거 점수를 적용했을 때보다 미국 유아들에게 미국 준거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안정성 점수 분포 양상과 더 유사하였다. 그리고 안정성 평균 점수의 경우에도 중산층 비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한 미국 유아의 안정성 점수의 평균(M=.42, SD=.11)과 본 연구에서의 중산층 비취업모 유아의 안정성 점수의 평균(M=.41, SD=.14)은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 애착은 종특유의 현상이며 애착의 안전-기반 현상은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간주할 때(Bowlby, 1969/1982, Posada, Gao, 등, 1995), 어느 한 문화권의 유아가 다른 문화권의 유아에 비해 더 안정된 상태로 애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 문화권에서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애착 행동 특성을 간과한 채 한 문화권에서 설정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특정 문화의 수월성을 인정하게 될 뿐 진정한 비교 문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만든다. 따라서 한 문화권내에 있는 개인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문화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특성을 더 민감하게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Posada, Gao 등(1995)은 7개국의 어머니들이 보고한 애착 Q-set 자료에 근거하여 모든 문화의 유아들 대부분이 적정 수준의 안전-기반 행동을 나타내는 가설적인 미국 유아의 Q-sort 프로파일과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문화마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유사하였으나 그 유사성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한 문화내에서의 유사성 수준도 낮았다. 이는 애착 행동의 조직화에 있어서 광범위한 개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문화간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안정성 점수의 분포에서는 뚜렷한 문화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애착 Q-set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세부 영역에서는 문화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이에 대해 비교문화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분포

본 연구의 대상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함할 뿐 아니라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상에서 생태학적 환경에 따른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분포 및 애착 Q-set 하위 항목에서의 집단간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안정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산층 유아의 안정성 평균점수가 저소득층 유아의 평균점수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안정성 점수 이외에 애착 Q-set의 하위 영역에 대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분노를 곧잘 표현하거나 칭얼거리는 등 다루기 쉽지 않은 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된 '까다로움' 요인에서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유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어머니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좋아하는지를 평가하는 '신체적 접촉 즐김' 요인에서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 유아들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안전-기반 행동'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영, 신은주, 나종혜(1995)의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유아들은 어머니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얻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그들의 상호작용을 보면, 저소득층 유아는 중산층의 유아들에 비해 어머니로부터 위협받거나 부정적 표현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빈번했다. 이러한 환경은 유아의 정서적 특성을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특성으로 조장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들은 중산층 유아에 비해 '신체적 접촉 즐김' 요인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이 유아에게 미소짓거나 신체적으로 애정적인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데는 중산층의 어머니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저소득층 유아들은 중산층에 비해 유아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랄 때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어머니들은 유아의 신호에 민감하지 않아 일관되게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유아가 주도적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해 접촉을 시도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어렵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은 중산층의 유아에 비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기 쉬운 양육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아가 위험할 때나 위기를 느낄 때 어머니를 안전한 기반으로 삼는 애착 현상이 기술된 항목들로 구성된 '안전-기반 행동' 요인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에 차이가 없었다. 계층에 상관없이 이 연령의 유아들은 불안감을 느낄 때 어머니가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를 탐색해보는 '안전-기반 행동'에서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애착 유형 간에 애착 Q-set의 하위요인에 대한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Pederson과 Moran(1995)의 연구에서는 Ainsworth의 초기 연구(1971)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어머니와 12개월 영아 간의 관계 구조를 관찰하여 A, B, C 유형으로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애착 유형별로 각

집단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와 애착 Q-set 하위 요인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와 애착 Q-set 하위요인 중 '안전-기반 행동' 점수에서 안정 애착 유형(B)의 영아는 불안-회피 유형(A)과 불안-저항 유형(C)의 영아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신체적 접촉 즐김' 요인에서는 A 유형의 영아가 B, C 유형의 영아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며, '까다로움' 요인에서는 C 유형의 영아가 A, B 유형의 영아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이들의 연구를 참조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중산층에 비해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을 덜 즐기며, 다소 까다로운 행동 특성을 지니는 유아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그들의 애착관계를 A, B, C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A 혹은 C 유형인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 및 각 하위 요인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산층의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양육 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이 영, 신은주, 나종혜, 1994)에서 제시되었듯이, 어느 정도 다른 측면의 양육 행동을 보일지라도 애착과 관련된 양육 행동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취업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체 표집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표집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의 표집을 이용하여 재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생태학적 환경에 있는 표집이 포함되었지만 상류층 표집과 저소득층 취업모의 표집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애착 Q-set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써 계층이나 어머니 취업여부라는 인구학적 특성에 내포된 유아-어머니 간 상호작용 과정이 애착 Q-set를 통한 애착 안정성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제한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애착 Q-set를 이용하여 추후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다양한 계층의 표집을 사용하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과 관련하여 애착 안정성 및 애착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애착 Q-set 자료를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애착 Q-set 안정성 국내용 준거 점수를 개발하여 광범위한 표집에 대해 이를 적용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애착 Q-set는 유아의 안정성 점수를 산출할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에서 산출된 점수나, 혹은 하위 요인에서의 점수를 분석하면,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해 유아가 어떤 내적 실행 모델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국내의 연구에서 애착 Q-set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의 12개월 유아용과 36개월 유아용 국내 준거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이 애착 Q-set는 관찰자가 분류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분류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평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장 신뢰할만한 관찰자가 될 수 있다(Teti & McGourty, 1996).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애착 Q-set를 분류할 때는, 애착 애착 Q-set의 항목과 자녀의 현재 행동을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분류하는 동안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관찰자가 분류할 경우에도 관찰 전에 최소한 안전-기반 행동에 대해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애착 Q-set 항목 각각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익히고, 사전 가정방문을 통해 애착 Q-set 항목과 관련하여 여러 연령 범위의 유아들에 대해 분명히 파악한 다음, 관찰자간 신뢰도를 적절히 확보한 후에 관찰해야 한다(Teti & McGourty, 1996). 이러한 사실들은 애착 Q-set를 통한 타당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과정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종순(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 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나유미(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나종혜(1994).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응임, 박성연(1994). 낯선상황의 애착유형분류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59-170.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영, 신은주, 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Ⅰ). **아동학회지**, 15(2), 37-54.

이 영, 신은주, 나종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Ⅱ), **대한가정학회지**, 33(3). 150-165.

이영환(1992).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관한 사례 연구. **아동학회지**, 13(2), 5-14.

이영환(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희(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Belsky, J., & Rovine, M. (1990). Q-sort security and first year nonmaternal care. In K. McCartney(Ed.),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The social ecology of day care*(pp. 7-22). San Francisco: Jossey-Bass.

Bosso, O. R., Corter, C. M., & Abramovitch, R. (1990). *Q-sort attachment measures of 18-to 32-month-old firstborns: Relation to Strange Situation classification and to behavior toward a younger sibli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oronto.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59-775.

Chung, M. J. (1973).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first five years of life by urban mothers in five cult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NY: Syracuse University.

Grossmann, K., Grossmann, K. E., Spangler, G.,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

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33-256.

Howes, C., & Hamilton, C. E. (1992a).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 859-866.

Howes, C., & Hamilton, C. E. (1992b).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hild care teachers: Stability and concordance with parental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63,* 859-866.

LaFreniere, P. J. (1985). Assessing child parent attachment across cultures: A comparison of the strange situation and Q-sort method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April.

Lamb, M. E., Hwang, C. P., Frodi, A., & Frodi, M. (1982). Security of mother-and fa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 to sociability with stranger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wedish famil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355-367.

LeVine, R., & Miller, P. M. (1990). Commentary. *Human Development, 33,* 73-80.

Miyake, K., Chen, S., & Campos, J. J. (1985). Infant temperament, mother's mode of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 Japan: An interim repor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76-297.

Pederson, D. R.,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Serial No. 244), 111-132.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Posada, G., Gao, Y., Wu, F., Posada, R., Tascon, M., Sch elmerich, A., Sagi, A., Kondo-Ikemura, K., Haaland, W., & Synnevaag, B. (1995). The secure-base phenomenon across cultures: Children's behavior, mothers' preferences, and experts' concepts.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

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Serial No. 244), 27-48.

Posada, G., Waters, E., Crowell, J. A., & Lay, K. (1995). Is it easier to use a secure mother as a secure base? Attachment Q-sort correlates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Serial No. 244), 133-145.

Sagi, A., Lamb, M. E., Lewkowicz, K. S., Shoham, R., Dvir, R., & Estes, D. (1985). Security of infant-mother, father, metapelet attachments among kibutz-reared Israel childre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57-275.

Schachere, K. (1989). Maternal employment during infancy: Family process that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mother-infant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Seifer, R., & Schiller, M. (1995). The role of parenting sensitivity, infant temperament, and dyadic interaction in attachment theory and assessment.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Serial No. 244), 146-173.

Silverman, N. (1990). Attachment, maternal behavior and preschool competence at age thre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Strayer, F. F. (1984). Bi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family. In R. Parke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The family(Vol. 7.* pp. 1-19)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rayer, F. F., Verissimo, M., Vaughn, B. E., & Howes, C. (1995).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rimary social relationships.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Serial No. 244), 49-70.

Takahashi, K. (1986). Examining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with Jap-

anese mothers and 12-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65-270.

Teti, D. M., & McGourty, S., (1996). Using mothers versus trained observers in assessing children's secure base behavi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Child Development, 67,* 597-605.

Teti, D. M., Nakagawa, M., Das, R., & Wirth, O. (1991). Security of attachment between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Relations among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sorts of the Attachment Q-set.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0-447.

van Ijzendoorn, M. H., Kroonenberg, P. M. (1988).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Vaughn, B., Deane, K., & Waters, E. (1985). The impact of out-of-home care on child-mother attachment quality: Another look at some enduring questions. In I. Bretherton &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57-275.

Vaughn, B. E., Waters, E., Kotsaftis, A., Stevenson-Hinde, J.,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3), 463-473.

Vaughn., B. E., Strayer, F. F., Jacques, M., Trudel, M., & Seifer, R., (1991). Maternal descriptions of two-and three-year-old children: A comparison of attachment Q-sorts in two socio-cultural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4,* 249-271.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

White, K. A., & Feldstein, S. (1994, June). *Infants' secure base behavior as assessed by the Strange Situation and the Q-sorts of mothers and observers: Comparisons within and across methods.* Paper presented at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Paris.